



들꽃편지 638

2022.3.5. 경칩호

<https://cyw.pe.kr> 햇별같은이야기

똥산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개척했습니다. 커다란 목장이 있는 옆길을 지나가는데 길가에서는 안 보이는 목장 뒤편에 똥산이 있었습니다. 몸집이 큰 소들은 똥을 푸덕푸덕 많이도 싸니다. 포크레인으로 똥을 긁어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아 언덕이 되어버린 똥산인데 소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코를 막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갑부소리를 들었던 경주 최부잣집에 어느 날 스님이 하룻밤 묵어가면서 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재물은 똥무더기 같은 것이어서 한 곳에 모아두면 똥냄새가 나 코를 틀어막아야 하지만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외다. 관샘보사알~” 푹 푹 토로로로로...(목탁소리)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후손들에게 준 유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15:7-8)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살만하고, 평화롭게 되려면 아무래도 손을 움켜쥔 부자보다 손을 편 부자가 좀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의 70%를 움켜쥐고 있는 10%의 부자들이 한 손만 펴줘도 국민들 90%의 삶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나아질 것이라 합니다.

산처럼 쌓인 소똥을 보고 코를 움켜쥐고 급히 지나가면서 부자들이 산처럼 쌓아놓은 자본에서도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최용우 올립니다.



순명

모리아로 가는 길
아버지도 아들도
눈을 감았네. (한희철)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건져 올린 그물에서
쓸 만한 고기를
거두는 것이
하늘나라일진대(마태복음13:48)
시끄러운 거리에서
고요함을 누리면
또한, 하늘나라
아니겠는가?

그림자 있는 곳에
빛이 있듯이
시끄러움 있는 곳에
고요함이 있거늘.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그대 썩은 발밑에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느니.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29 그 계란 네꺼니?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한다면 영적인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마음속에 반드시 답변을 하여 주십니다.

언젠가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세수를 할까요 말까요?” “애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니 얼굴을 깨끗이 하듯 나에게 보이기 위하여 마음도 닦아라.”

“주님! 대변을 볼까요 말까요?” “애야, 변을 통하여 더러운 것을 버리듯 니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욕심을 버려라.”

아파트 경비 일은 24시간 격일제입니다. 도시락 김치 하나에 찬밥 한 덩이를, 점심은 열 한시 반에, 저녁은 다섯시 반에 먹고 나면 저녁 9시쯤 되면 배가 서서히 고프기 시작합니다.

“뭐 좀 먹을 거 없을까?”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 봅니다. 계란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여러 곳에서 보내 주어서 항상 먹을 것이 많습니다.

“이거른 되겠네.” 계란 한 알을 들고나와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사서 컵라면에 계란을 넣어 맛있게 먹어 허기를 면하였습니다. 잠시 후 마음속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계란 네꺼니?”

“아뇨” 차라리 편의점에서 컵라면 살 때 계란 한 알도 같이 사면 될 것을 한 푼 아낀다고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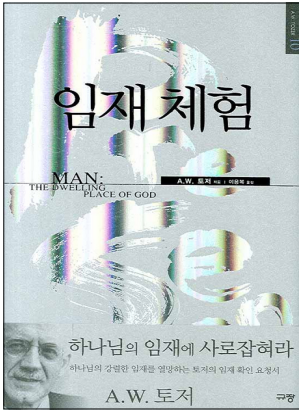
다시 편의점에 가서 계란 세 알을 사서 경로당 냉장고에 살며시 넣었습니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임재체험



토저 마이티 시리즈 10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63쪽 12,000원 규장 2007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갈망이 없는 것이 가장 악한 병이다.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지도, 체험하지도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놓아버린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1.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핵심 진리만을 따르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이다. 모든 인간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줄 본질적 진리가 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 셋째,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의하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만 결국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수고로운 인생은 수고한 사람과 함께 죽어 없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나라 우리의 모든 수고에 불멸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다섯째, 인간의 죄는 실재한다. 여섯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

2. 진리를 따를 것인가, 행복을 택할 것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 곁에 서서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그를 결코 바로잡을 수 없다. 그의 길을 가로막고 “당신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말해주는 사람만이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종교관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위배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노’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되는 잘못된 가치관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3. 막대 사탕만 핏는 신앙에서 깨어나라.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진지한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적게, 오락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모임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신자들의 모임'이다. 만약 어떤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신자들은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4.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라.

너무나 많은 곳에서 '믿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믿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세대가 탄생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2:15).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첫 번째 삶은 아담 안에서 삶이다. 이것은 육적인 동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죽어야 한다(롬 8:5-8). 두 번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다.(롬6:1-14).

5. 참된 신앙에는 의지적 결단과 능동적 선택이 뒤따른다.

참 신앙은 영적 도덕적 변화를 일으키며, 정확한 내적 증거를 갖게 하는데 이런 변화와 증거는 우리가 '신앙'을 믿기를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 참 신앙은 수동적이지 아니라 능동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교훈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6.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은밀한 방'이 있으며, 거기에는 그의 존재의 신비로운 본질이 거한다. 이 신비한 본질은 인간의 복잡한 여타 다른 본성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그를 창조하신 자존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의 고유 본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은밀한 방'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들어오실 자격이 있다.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 사이에 있는 높은 담을 허물고, 그것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봉헌이었다.

7.하나님께 거룩한 상처를 구하라.

600년전 ‘줄리안 여사’는 영적 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영국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이런 명성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오, 하나님! 저에게 세 가지 상처를 주옵소서, ‘회개의 상처’, ‘공홀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소서.”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분을 사모하길, 그 상사병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그분을 갈망하기를,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신다.

8.새 십자가가 아니라 옛 십자가를 전하라.

오늘날 새로운 십자가가 복음주의 진영에 슬며시 생겨났다. 이곳에서 복음주의적 테크닉이 생겼다. 새로운 형태의 집회, 새로운 종류의 설교이다. 옛 십자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새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지 않고 단지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새 십자가는 죄인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그가 품위 있게 즐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 새 십자가는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한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와서 주 안에서 네 사랑을 늘어놓아라”라고 말한다. 짜릿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짜릿한 맛을 보라”하고 말한다. 옛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완벽한 죽음을 의미했다. 타협하지 않으며, 수정하지 않으며, 봐주지 않는다. 옛 십자가는 사람을 완전히 영원히 죽인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생명은 ‘옛 생명을 개선하여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죽음을 통해 나온 생명이다.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 저편에 서 있다. 이 생명을 소유하려면 누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정당한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옛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 감히 우리가 몽당연필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지워버린다거나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성막에 대한 본을 바꿀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옛 십자가를 전하자. 그러면 2천년 전 주님의 능력이 지금 다시 나타날 것이다.

9.깊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대부분 위대한 신앙인들은 고독했다. 고독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된다. 신약시대 이전의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매우 달랐다. 그런데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고독은 그가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야 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까지도 종종 삼가야 한다.

10. 한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라.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성도간의 교통의 울타리로 들어오려면 진리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다른 문은 없다. 여기에 타협이란 결코 없다. 성도의 교통의 또 다른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체 없는 시적 은유가 아니다. 신약이 매우 강조하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다.

11. 자아라는 가장 질긴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다. ‘인생’이라는 동산에서 자리는 가장 질긴 잡초들 중 하나는 바로 자아이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순간, 자아는 어디선가 건재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우리 삶의 열매들에 독을 뿌리고 우리의 평안을 파괴한다. 그러나 승리하려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을 우리도 겪어야 한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거부당하고 포기하고 격리되고 추방당해야 한다.

12.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삶으로 전진하라.

2천년 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그분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과

거의 삶을 즉각 포기하고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이런 단호한 헌신이야말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영적인 삶으로의 전진을 위해서는 첫째, 믿음으로 바라기만 하는 단계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습관들을 버려라. 셋째,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라. 넷째,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충만케 하시도록 초청하라. 다섯째, 당신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13.성령을 힘입어 믿음의 지식과 체험의 지식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진리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식이다. 이런 믿음의 지식보다 더 순수한 지식이 있다. 직접적 영적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습득되지 않고 체험된다.

14.영적 체험의 건전성을 시험하라.

어떤 교리나 종교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묻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위로부터’ 왔는지 ‘아래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념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다. 둘째, ‘나의 새로운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이다. 셋째, ‘그 체험이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이다. 넷째, ‘그 체험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피는 것’이다. 다섯째, ‘그 체험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향한 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이다. 여섯째, ‘그 체험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일곱째, ‘그 체험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15.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보물은 없다.

이제껏 인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이 보물들을 찾겠다고 발버둥 쳐왔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만 안겨주었을 뿐이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중 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들이라면 그들의 시도 역시 심판받게 될 악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라고 믿기를 바라신다.



16. 진리의 정원을 가꿀 뿐만 아니라 담대히 진리의 편에 선다.

정원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 받아들이고 오류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일을 게을리한 사람의 마음은 금방 '신학적 광야'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다. 진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회나 교파는 머지않아 길을 잃고 이단과 오류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포용적 태도를 취하며 동시에 '영원히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이다.

17. 진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거룩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사랑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어떤 것이 그분의 진노가 아닌지 구별할 줄 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히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적할 때마다 싸움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피조 세계의 건강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18. 기쁨에 찬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어린애 같은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소박한 사람들만이 '치유해주고 깨끗케 하고 통합시켜주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나 사람들의 거짓 신앙을 깨뜨리고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돌려놓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광스런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그 소망을 회복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독서일기 ©이재익 목사 (일본 니이가타교회)

뽕나무

뽕나무를 보면
삭개오가 생각한다.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올라 올라 갔었지.

뽕나무를 보면
예수님도 생각한다.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나도 올라 가볼까?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中

[덧글]

2465 /삭개오가 기어 올라갔던 뽕나무는 축복받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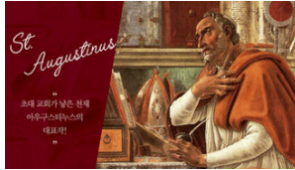
뽕나무를 볼 때마다 삭개오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지난번에 뽕나무 잎사귀로 삼겹살 싸 먹으니 끝내주더이다.

나라도/헌데 지금의 나는 뽕나무 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날 부르시면 어찌나 하고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살고 싶은 이기주의자인 내!
를 어찌할까요?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196.선택된 신들에 대한 바로의 해석은 한결같지 않다

매우 박식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바로가, 정교한 논의를 펼쳐. 그 모든 신들을 하늘과 대지로 되돌리는 동시에 그것과 관련 지으려고 몹시 애쓴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신들은 그의 손에서 넘쳐흐르고 튀어나와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197.선택된 신들의 모든 권능은 모두 참된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 있다

이교도들이 선택받은 신들에 대한 신학적 근거로서 세계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은, 세계를 창조하고 모든 영혼과 신체를 만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신을 모독하는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품을 일이 없어질 것이다.

198.참된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한 존재들에게, 존속하고 활동하는 처음과 끝을 정해주셨다. 그분은 사물의 원인을 모두 이해하고, 알고, 또한 배려한다. 하나님은 모든 종자들에게 활력을 주었다. 또한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정신(아니무스)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영혼을 내리고, 언어능력을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물의 창조자인 동시에 그것을 통치하고 있다. 그분은 빛을 내는 모든 물체 가운데 가장 빛나는 태양을 창조하고, 그에 알맞은 힘과 운동력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도 전체이고, 어떤 장소에서도 한정되지 않으며,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어떤 부분으로도 나뉘지 않으며, 모든 점에서 불변하고, 하늘과 대지를 아우르는 힘과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본성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그것들이 고유한 운동을 자유로이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없으면 피조물 또한 하나도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똑같은 피조물은 이 세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며, 천사들의 행복의 밑바탕은 하나님 자신 말고는 없다.(계속)

회개(1)



1. 진리와 행복

여기에 사과 10개가 있고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7개를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9명이 3개를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명이 사과를 하나씩 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과 하나로 7명이 쪼개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0명이고 전체 자본을 사과 10개라고 가정해 본다면 위에 설명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은 상위 10% 사람이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10%의 자본을 70% 국민이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사과 7개를 가져간 1명은 대통령이 똑똑하면 자신의 사과를 빼앗아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을 알기에 약간 어리버리하고 자신들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과 하나로 일곱조각 내서 경쟁을 하며 나누어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善化)보다는 악(惡化)을 따라가는 인간들의 심리는 '에텐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타락설 외에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과를 서로 하나씩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진리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남보다 내가 더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비진리에 속아서 오늘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인 이유는 사

람들이 속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차리고 폭로한다는 것입니다.(7142)

2. 듣기 싫은 소리 진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비위를 맞추다거나 아첨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것은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인간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쓴 말은 입을 다물어 버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달콤한 말만 합니다.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심판’의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죄를 범한 영혼은 죽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꼬치꼬치 따집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러한 죄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을 살살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라고 무지막지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감상적(感傷的)으로 왜곡시켜서 회개해야 될 죄악을 동정심과 자기연민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제 더는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6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쳤으니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달콤한 말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진리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낫을 피해 숨은 것처럼 진리를 피해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7143)

3. 유대교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주류 교단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 곧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헬레니즘화 되어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와 신앙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오경(토라 또는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준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많은 교인수와 회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회의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가장 많은 교인 수와 교회 숫자로 막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선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적(敵)이다’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이 너무 강하여 그 결과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 교단과 뜻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 딱지부터 붙이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자신들과 다름을 못 견뎌냅니다. 스스로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평가합니다.

서기 70년 유대 전쟁 이후에 로마에 저항했던 사두개파, 에세네파, 켈롯파는 사라져버렸고 로마제국에 협조하였던 바리새파만 살아남아서 2천년이 흐른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들과 독재정권에 기생했던 교단들이 아직도 가장 큰 기득권 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영판 그 모양이 닮은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문득 '태생적 한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7144)

4. 광고와 전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교회들을 보면 전도지 한 장에 물티슈를 붙여주거나 건빵을 묶어서 주거나 요즘에는 마스크를 붙여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티슈나 건빵이나 마스크가 미끼인 셈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전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언어가 가득합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전도'라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미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전단지야 라면 하나 붙여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받아 가고, 라면 한 묶음을 붙여주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더군요. 그들은 아파트를 분양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라면 한 묶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광고비로 씁니다. 사람들도 그 정도는 되어야 전단지를 받아줍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천개의 광고를 본답니다. 눈만 뜨면 광고요 고개만 돌러도 광고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광고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광고가 노골적이고 선정적이 되어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와 '교회'를 상품처럼 광고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광고'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력 인지는 각 동네마다 사정이 다르니 저는 알 수 없지요. (7145)

5. 증상과 원인

어떤 병이든 의사는 그 증상을 보고 ‘원인’을 찾아내어 처방을 합니다. 특히 한의(韓醫)는 그 병의 근원을 찾아서 다스린다고 합니다.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치료하면 반드시 다시 그 병이 재발합니다. 다른 비유를 하자면, 적은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그들이 지나가며 일으킨 먼지를 향하여 포탄을 발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신앙의 무기력’입니다. 아무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일에 억지로 흥미를 느껴보려고 발버둥치는 ‘신앙의 권태’입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려운 헬라어 단어, 전문신학용어 같은 것들은 솔직히 일반 교인들에겐 그다지 흥미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요즘에는 예배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줄릴 때 하품을 해도 표가 안 나니 좋아요. ㅎㅎㅎ...”라고 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그저 매주 예배는 드려야 하기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기대를 하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무기력해진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흥미를 끌만 한 프로그램과 영상 제작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예배가 마치 ‘화려한 텔레비전 버라이어티 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관심을 되찾았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쇼만 화려해지고 재정만 더 투입될 뿐입니다.

4. 교회가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잘못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권태와 무기력 증상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7146)

6. 이상한 교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지체되자 산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지도자인 ‘아론’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바쳤던 열정보다 열 배는 더 뜨겁게 금붙이들을 앞다투어 내놓았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가 되어 사람들의 열광적인 숭배를 받았습다.

오늘날 권태와 무기력에 빠진 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에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얹혀놓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든지, ‘하면 된다는 금

정적인 생각'이나 '성전건축' '교인 숫자 배가 운동' 같이 눈에 보이는 목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인은 "이 땅의 교회는 죽었다. 교회의 죽음은 당혹스럽지만 사실이다. 교인들이 영적 지도력을 원할 때, 교회가 이상한(?) 지도력을 보여줌으로서 교회가 미쳤거나 죽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신조(信條)는 분명 '정통'인데 행동은 반대로 교파나 교단의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를 보면 이상합니다. '이상한 교회'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환자의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우스꽝스러운 지도자 아닙니까? (7147)

7.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며 사역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그분의 공생애 사역 첫마디가 무엇이었는데 생각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선포하였고,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개하라'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율법적' 회개였고 예수님의 회개는 '존재 변화적'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끝인 세례 요한이 옛 계약을 완성하고 감옥에 갇히자 '비로소' 새 계약인 회개와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福音)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代贖)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회개'가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반쪽짜리 복음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반쪽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代贖)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죄를 대속하셨는지도 모르고, 실감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방자하게 행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7148) ©최용우



짬뽕(사진:최용우)

짬뽕과 500원

하루 세끼 밥때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밥 먹고 돌아서면 금방 또 밥을 준비해야 된다고 아내가 한숨을 쉰다. 그러더니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한다. 짜장면은 안 먹는 사람인데 별일이네. 진짜 밥하기 싫든가 보다. 얼른 전화를 걸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배달을 해주는 양짬뽕에서 짬뽕, 짜장, 군만두를 하나씩 주문했다. 배달 오토바이만 다섯대나 될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집이다. 금방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지 21,500원인 음식값에서 갑자기 500원을 깎아준다. 아침 기도 시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한마디씩 해주겠다고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실천했을 뿐인데. 앗싸, 말 한마디로 500원 벌었다.

환글탈티 우리집 말

자동차의 리어휀다 부식이 너무 심하여 지난달 말에 동네 공업사에 도장을 맡겼었는데 18일만에 예쁘게 도색이 되어 오늘 차를 찾아왔다. 양쪽 리어휀다와 뒷편퍼를 새로 갈고 도색을 했다.

2008년식 쏘울(soul)만 유난히 철판 부식이 심하다고 한다. 그 시기에 차를 만들면서 수출용 차는 부식이 안되는 강판을 쓰고, 내수용 차에는 등급이 낮은 철판을 써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다. 어쨌든 그동안 아내가 녹이 슨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게 마음이 아파서 “주님, 주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인데, 이렇게 왕의 자녀가 녹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올 겨울에 깔끔하게 도색을 하게 된 것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새 차는 아니지만 예쁘게 변신한 차를 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하겠나이다.



푸리물러

대평 오일장에서 히아신스 두 알을 5천 원 주고 사 와서 컵에 담아놓았는데, 꽃대가 올라오기도 전에 꽃이 휘리릭~ 다 피었다가 순식간에 볼품없이 죽어버렸다. 소복하게 올라와 탐스러운 꽃을 볼 것을 기대하였는데 돈만 아깝게 되었다.

눈요깃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겨울에 색갈이 있는 작은 꽃은 삶에 큰 활력소가 된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씩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키워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작은 화분을 사려고 하면 적극 말린다.

오늘도 이-마트에 갔는데 꽃화초 코너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하나 사고는 싶은데 잘 키울 자신은 없다. 몇 번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다시 들지 않았다.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자.



부여 친구

예배를 마치고 불현듯 부여 어느 산자락 햇볕이 잘 드는 양지쪽에 스스로 집을 짓고 사는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어여 오셔.” 어여 달려갔다가 오후 시간을 잘 보내고 왔다.

집 앞에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다. “봄에는 개구리 소리 좀 나겠는데요” 했더니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다.

“다 잡아먹어 버려요. 조용하게^^”

집을 마치 갤러리 처럼 멋지게 잘 지어놓았다. 목사님에게 이런 숨은 재주가 있었구나. 나에게는 ‘개집’ 하나도 만들 재능이 없으니 나는 주님께서 그냥 누군가가 잘 지어놓은 집을 주셔야 한다.

아내는 자신의 로망이라며 ‘비닐하우스’를 부러워한다. 음, 나는 비닐하우스를 지을 재주도 없다. 워쩌냐.... 주님께서 그냥 누군가가 잘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도 주셔야 한다.



졸업식

아따, 수능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춥냐. 코로나 때문에 학과별로 시간을 정해서 학교에 나와 사진을 찍고 얼른 돌아가야 하는 신기한(?) 졸업식이다. 딸2호 밝은이는 10시부터 12시까지이다.

학교에 가서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교정 여기저기에서 사진만 찍는 졸업식을 했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빨리 찍고 가자. 여기저기서 춥다는 비명 소리가 들린다. 세상이 너무 춥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숙사, 친구들과 동거, 거처를 찾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에 오늘 졸업을 하는 밝은이의 앞날에 광명 대로가 펼쳐지기를!

사진 찍는 졸업식을 마치고 자장면 먹어야 하는데 코로나 걸릴까 무서워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 먹고 강남의 유명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플라워테라피

요즘 딸1호가 다육이에게 푹 빠져있다. 고양이에게 빠져 살더니 동물에서 식물로 관심이 옮겨갔다?. 동생의 말로는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다육이를 들여다보며 사랑과 애정을 쏟는다고 한다.

이번에 서울에 가서 '좋은이의 정원'을 사진으로 찍었다. 식물을 보살피면서 식물과 교감하는 것을 플라워테라피라고 한다. 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보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서적 안정감도 갖게 되고 우울증 완화·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좋은이의 관심을 듬뿍 받은 다육이들이 엄청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놈은 꽃대가 올라와 있었고, 인큐베이터(?)에서 무럭무럭 뿌리는 내리는 놈도 있었다. 나중에 다양한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이 카페'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생명이 움트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서적 안정감도 갖게 되고 우울증 완화·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좋은 일이다.

10000번을 쓸 수 있을까요?

햇별같은이야기는 매일 아침에 원고 5매, 1천자 길이의 글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큰딸이 태어나던 해 우연히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면 평생 1만편은 쓰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되어 28년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165번째 글을 써서 띄우며, 앞으로 2835회를 더 써서 1만회를 채울 수 있을까? 10년 정도는 더 써야 하는군요. 꼭 해내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매일 글을 쓰는 좋은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서버'를 돌린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서버는 보통 5년마다 한번씩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햇별같은이야기 1만회를 쓸 수 있도록 서버 복구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 하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홈페이지에 올린 글)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별같은이야기
<http://joy.pe.kr> **예외유머동화** **자문설교편도** **기도찬양성경** **시진** **대명아루** **仁南燾**
생방송 **독수공방** **달은데로가서** **허와실** **한글교과** **꽃씨외도독**
 제7165호, 2022년2월21일 외우를 실은백제시대산책록 쪽지! <이런 다음> **지난호**
 <어머머머란 교만침>
 1. 최 중애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씩과 얽히게 하지만 '교만' 죄는 유일한 죄인입니다. 더 벌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혹하게 여기는 죄이며인입니다. 그래서 조니와 에드워드는 '교만'이란 죄를 은밀하고 비밀스런우연서도 모른 죄에 가장 속일수가 없다 고 했습니다.
 2. 자신을 높이는 세 가지 교만죄가 있습니다. 내가 상용하고 남이 실용할수록, 그 사람이 내게 없다면은 우물만 떠들듯 갖는 자만죄와, 그거야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자랑 죄로 까지고 그다음 자신이 흉고 남이 흉하다는 자기칭양죄가 됩니다. 배리새인들이 이런 교만을 벌여 주었습니다.
 3. 자신을 위스르려해 세 가지 교만죄가 있습니다. 내가 실재하고 남이 실용할수록, 자기비하죄를, 자신이 남보다 공이 없거나 상함이 없거나나 가진 것이 적을때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자기자랑 죄를,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칠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책할 죄 있습니다. 교만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니 그 자체가 죄입니다.
 4. 교만을 회개하고 회개하려면, 겸손이라는 주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므로, (1백만5천 성령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의 동산인 성 사랑로 돌아가는 것1만번입니다. 그것은 나로 큰

202222222222

오늘은 2022년 2월 22일이다.

2시 22분 22초 그 순간은 내 생애에 2자가 11개로 가장 많이 들어간 순간이었지만 쿵쿵 자면서 지나갔다. 이것을 시계의 숫자로 표시하면 2022.2.22.2.22.22이다. 24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는 오늘밤 10시를 22시로 표시하면서 2자가 12개나 줄을 서는 진귀한 순간을 보내게 된다. 200년 후엔 시계의 모든 글자가 2가 되는 짜릿한 순간이 오겠지?

날짜 가운데 똑같은 숫자가 10개 이상 들어간 날은 나에게서 앞으로 없을 것이다. 지난 날 중에는 2011.11.11.11.11 딱 한 번 있었다. 그날도 비슷한 글을 쓴 기억이 난다.

인류의 유구한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순간이 있고 내가 그 순간을 우연히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그냥 재미로 써 봤다.

불쌍한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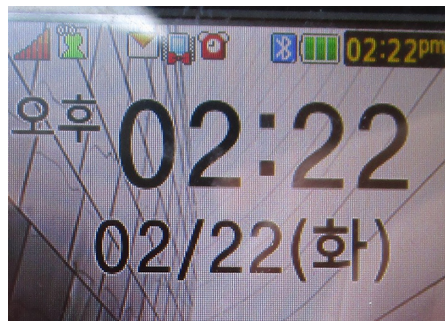
늘 고양이들이 마당에 바글바글 했었는데, 밥을 안 준 이후로 고양이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릴 때부터 사료를 몇 푸대나 먹여 기른 '꼬맹이'도 2월 11일 딸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한번 놀아준 이후로 안 온다. 그날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간 날이었나보다.

아이들 앞에서 한번 배를 보여주며 똥굴 어주고는 썩하니 가버렸다.

동물을 키울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마음 아픈 것이 싫어서 내심 꼬맹이가 좋은 곳에 가서 잘 살기를 바라며 밥을 어찌다 한 번씩 뜬하게 주며 정을 떼었더니 자연스럽게 영역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다.

요즘에는 아주 가끔씩 '겹쟁이'가 창문밖에서 안을 들여다본다. 다른 곳에 영역이 있는 고양이인데 진짜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래도 정들까 봐 밥은 안 준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40회 비학산229 (일출봉252m) 2022.2.4

영하 10도인데 체감온도는 더 낮아서 가만 있어도 털덜덜덜덜덜. 개털모자와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완전무장을 한 다음 비학산 올랐다. 내려올 때는 발산리 안골 마을 쪽으로 내려왔다. 목장 옆을 지나오는데 세상에... 소들이 하늘이 다 보이는 난장 우사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딱딱 붙어서 발발발발발 떨어 있었다. 우사의 공간이 하도 넓어서 난방은 고사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아이고... 소들이 얼마나 추울까... (2022.2.4)

▲제541회 비학산230 (일출봉252m) 2022.2.15

▲제542회 비학산231 (일출봉252m) 2022.2.25

▲제543회 비학산232 (일출봉252m) 2022.3.4

▲제544회 피꼬리봉 장군봉

금강변에 있는 부용마을 주차장에서 장군봉-피꼬리봉-박산리갈림길-양수장-주차장 약 5km 1시간 30분 동안 크게 한 바퀴 돌았다. 꽃샘바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벗겨질 정도였다.



피꼬리봉은 봄에 진달래꽃이 예쁘게 피고 여름에는 푸르름이 가득한 산이다. 주차장에서 급경사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면 금강과 세종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발아래로 펼쳐지는 아주 멋진 조망을 할 수 있는 산이다.

등산 안내도에는 피꼬리봉까지 50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30분만에 올라왔다. 정상에서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서둘러 반대쪽 계곡길로 내려왔다. 혼자 큰소리로 찬송하고 큰소리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한 등산길이었다. (2022.3.5.)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경칩 -꿈틀꿈틀

경칩은 놀란다는 ‘경(驚)’과 겨울잠 자는 벌레라는 뜻의 ‘침(蟄)’이 어울린 말로 겨울잠 자는 벌레나 동물이 깨어나 꿈틀거린다는 뜻입니다. 처음 5일간은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하고, 다음 5일간은 피꼬리가 짝을 찾아 울며, 마지막 5일간은 매가 보이지 않고 비둘기가 활발하게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만물이 움트는 이 날 젊은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씨앗을 선물로 주고받고 어두워지면 동구 밖에 수나무 암나무를 도는 사랑놀이로 정을 다졌다고 합니다. 경칩은 토종 연인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지에서는 썩이 자랍니다. 아낙들이 썩을 캐서 썩밥, 썩국, 썩지짐, 썩인절미, 썩버무리, 썩개떡... 썩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봄썩 먹고 썩썩 자랍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재판<양육주보><전도주보><명품주보><좋은주보> 4권 발행

각권 220쪽(컬러) 14,000원

57.겨울목상 - 218쪽 13,900원(올컬러) -12월27일 발행!

56.들꽃편지 2권 썩부쟁이꽃 - 504쪽 21,200원 -11월30일 출간

55.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예동) - 326쪽 14,600원 -11월5일 출간

54.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2 -398쪽 17,300원 -10월15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48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2.2월 재정결산

2022년 2월(1-28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기철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소망 오창근 옥치오 이남수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수환 정효숙 주명혁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안디옥교회 장사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총26분이 햇별후원 1,715,061원을

권현숙 김범수 김수정 김영민 김중곤 무명 무명(감사합니다) 무명(감사해요)

무명(건강하세요) 무명(서버) 무명(서버후원) 무명(십시일반) 박덕근 박미경

박병희 박성규 박승호 박용규 박종환 손제산 송재숙 안덕성 오창근 유종민
이미라 임종선 장기갑 장태영 정경애 정봉철 조민상 조일구 지경희 최경자
홍수복 황성은 실로암교회 은파교회 초대교회

총 39명이 서버후원 2,352,000원을 후원해 주셔서

모두 65분이 4,067,061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서버 구입 복구 헌금은 새로운 서버 구입과 홈페이지 복구에 사용하였고
남은 액수는 정기후원에 포함하여 사용했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3.5일 현재 7175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57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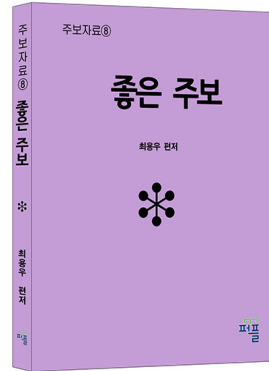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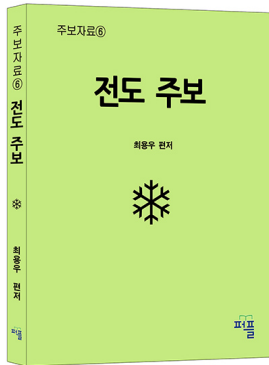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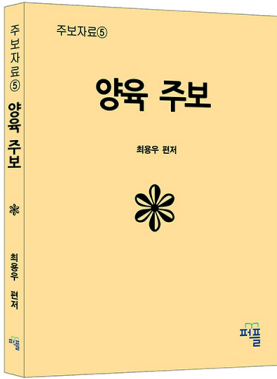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
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판 새 편집 컬러



2월에 4권이 나왔습니다.
1주일에 1권씩 나옵니다.

5권 양육 주보+파일
6권 전도 주보+파일
7권 명품 주보+파일
8권 좋은 주보+파일

최용우 편저
각권 220쪽
14,000원(컬러) 교보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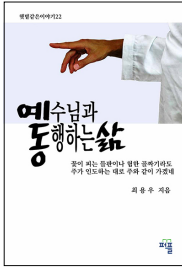
저는 지난 10년 동안 1년에 1권씩 주보자료집, 주보파일을 만들어서 1천여곳의 한국 교회에 제공했습니다. 아직도 연말이 되면 주보자료집을 찾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자기는 10권을 다 사용할테니 앞으로도 계속 주보자료집을 판매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노트북에는 CD가 없습니다. USB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주보자료파일을 CD에 구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자료집을 교보문고를 통해 출판하고 자료 파일은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책 안에 넣어서 다운 받게 하는 방법으로 책을 계속 유지시키겠습니다.

주보자료집을 찾는 교회가 있다면 책을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만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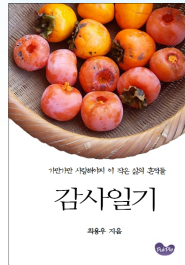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88편의 예수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퍼플



감사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한 개씩 주워 모아 365개를 바구니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게 다 감사꺼리라는 것을 아는 재미있는 책!
14,100원 392쪽 퍼플



햇빛일기

흰구름 떠가는 파란 하늘에 햇빛이 밝아 세상이 보송보송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니 또 하루를 참 잘 살았구나. 주변의 사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고 사색한 366편의 순수한 기록
14,100원 396쪽 퍼플



행복일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세상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바꼭질처럼, 때로는 놀이처럼 일년 동안 열심히 찾은 365편의 따뜻한 행복글 모음
14,200원 396쪽 퍼플



풍경일기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 거리가 숨을 쉽니다. 발길 닿는 곳엔 연초록빛 번지고요 햇살도 바람도 그의 등을 기댁니다.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365편의 진실한 이야기
14,300원 400쪽 퍼플



명랑일기

밝고 맑고 유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 삶이 뭐 별건가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요. 읽다보면 저절로 ㅎㅎㅎ 웃음이 지어지는 365편의 명랑한 얘기
15,200원 396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점)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38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